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

### 전주시, 지원규모 대당 장착비용 80% 최대 40만원 한도내 보조금

전주시가 전세버스와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시는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기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대당 장착비용의 80%를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80%를 지원하며, 그 이상일 경우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지원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특수여객)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대형 사업용 차량은 총 570여대로, 시는 올해는 476대(승합차 235, 화물·특수차 241)의 장착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나머지 분량에 대한 장착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절차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후, 부착확인서 등 보조금 청구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지난해 7월 18일(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이후 장착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첨단안전장치로 성능·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 제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와 전화(1577-0990)로 확인할 수 있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으로 사업용 차량의 안전이 강화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기장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지난해 운영된 한국전통문화재단의 '전통문화시제품제작소'가 올해도 다시 운영될 예정이다.

## 짜맞춤부터 목조각까지 전통의 목공을 배워보자

### 전통문화재단, 전통문화시제품제작소 사업 운영

지난해 시민들에게 목공제작의 기회를 제공,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된 한국전통문화재단의 '전통문화시제품제작소'가 올해도 다시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권한대행 송재명)은 전통공예기술의 저변 확대와 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전통공예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통문화시제품제작소' (이하 시제품제작소) 사업을 운영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제품제작소'는 지난해 한지산업지원센터 지하 1층에 마련돼 전통 짜맞춤 기술전수교육을 비롯해 원데이 클래스, 목공데이, 기계·장비교육, 목공데이 등 다양한 목공 관련 교육사업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조성된 시제품제작소에는 목공작업을 필요로 하는 제작자들을 위해 슬라이딩 테이블과 수납대, 자동대패, 밴드쏘, 각끌기, 드릴링 머신, 루터데이블, 스크롤쏘, CNC 등 다양한 수공구 솔루션

교육 뿐 아니라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시제품제작 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기계의 작동 원리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시제품제작소의 기계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목공 분야 전문가를 통해 목공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목공이 있는 날' 일명 '목공데이'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운영되며, 목공분야 전문가 강연과 네트워킹을 주선이 이뤄진다. 목공데이는 5월 '공예와 메이커 문화'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큰 호응 속에 마감됐던 전통 목공 기술전수교육의 경우 올해는 전통 짜맞춤에 추가로 전통 목조각 분야가 추가됐다. 전통 짜맞춤은 무형문화재 제19호 소목장 조석진 명인의 제자인 권원덕 작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을 진행한다. 초급 위주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좀 더 전문화되고 심화된 도제식 교육을 2회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전통 목조각 교육은 무형문화재 7호 소목장 방대근 명인 이수자인 윤호상 작가가 기초반 중심의 기술 교육을 12회 진행하게 된다.

수강생은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반별 10명으로 한정했으며 모집은 오는 5월 11일까지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다.

교육 뿐 아니라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시제품제작 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기계의 작동 원리와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시제품제작소의 기계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목공 분야 전문가를 통해 목공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목공이 있는 날' 일명 '목공데이'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운영되며, 목공분야 전문가 강연과 네트워킹을 주선

## '사회적경제조직 키울 천사 투자자분들을 찾습니다'

### 전주시, 크라우드펀딩대회 착수

전주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천사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시는 공익적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조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마이컴퍼니(www.ohmycompany.com)'에 전용관을 오픈하고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대회'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 시민 누구나 사회적경제조직

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공감하면 전액 관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클릭한 후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 펀딩대회에는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과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등 착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11개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해 천사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하나씨에게 건강한 치아를 선물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평화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과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 탈출여성을 위한 치아치료를 진행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해준 투자자들에게 스케일링 치료와 쌍화차를 리워드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시역화센터는 '어머님의 마음으로 만든 수제 농자기-한입푸드' 프로젝트를 통해 수급자와 차상위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HACCP(해썬) 설비와 컨설팅 비용을 후원하고, 투자자들에게 농자기 과자를 리워드로 계획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썬)정종로하스는 '에어컨의 맑은 공기는 분해 살균 세척 서비스로부터'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의 에어컨을 청소해주고, 투자자 가정의 에어컨도 완전 분해해 청소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나뉘드림돌봄교육의 '동네이모: 목박육아나눔터' △착한사람들의 '공유창작공간 착한공작소' △쿠미운동발달센터의 '내 아이의 발 건강과 숨어있는 키 찾기' △건강한이야기의 '건강한 식재료와 비건재료를 이용한 알러지 아토피 안녕!' △도심속화분관리

나·비·체의 '나와 부모가 함께하는 반려식물 나누기' △전주비전포럼의 '우리 동네 책 읽는 가게, 전주비전포럼' △전북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의 '엄마의 선물 같은 하루' △예술기획 My Stage의 '영재콘서트' 프로젝트가 시민들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이번 크라우드펀딩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경제·공유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공익적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하거나 육성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원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렇게 간단한 온라인 클릭만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품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대회 참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들을 위한 일자리가 탄탄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나의 작은 소비행위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민 기자

## '남친 신용카드 훔치고, 전 남친 집 털고' ... 20대 여성 입건

### 카드 7차례에 걸쳐 170만원 부정 사용... 금품 500만원 상당

교제 중인 남성의 신용카드를 훔치고, 전 남자친구의 집에서 금품을 털고, 전 남친의 집에 불을 질러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경찰청에서는 2일 절도 혐의로 박모(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중

순 전주시 금암동 전 남자친구 A(28)씨의 집에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시기 교제중인 B(27)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7차례에 걸쳐 170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A씨와 8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A씨가 집안 서랍장에 귀금속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절도행각을 벌였다.

또 B씨와는 교제 중인 사이로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B씨가 잠든 틈을 타 지갑 안에 있는 신용카드

를 훔쳐 사용했다. B씨는 잠에서 깨어난 뒤 박씨와 신용카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박씨가 습관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것 같다. 훔친 금품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쌓여 가는 채무를 정리하는데 사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